

“7말8초 옛말”... 치솟는 물가에 ‘얼리 휴가족’ 는다

일찍 여름휴가 떠나는 사람들

숙박·항공료 등 여행비용 급등
극성수기 대비 절반 넘게 절약
무더위·장마·인파도 없어 선호
호텔·유통업계 등 마케팅 나서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보니 성수기 시즌에 휴가를 떠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여행 비용도 아끼고 피서객이 물리지 않아 느긋한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이른 여름휴가를 다녀오게 됐어요.”

이달 초 미리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송한나(26)씨는 “성수기에는 숙박비와 항공비만 해도 8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번에 제주여행을 다녀오면서 총경비로 55만원 정도만 지출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탓에 최대한 휴가비를

절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빨리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고물가 여파로 7~8월 성수기를 피해 일찍 여름휴가를 다녀오려는 이른바 ‘얼리 휴가족’이 늘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숙박비와 항공료, 외식비 등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성수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무더위와 인파를 피해 쾌적한 휴가도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항공·호텔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응답자의 42%가 성수기인 7·8월을 피해 5·6·9·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52%는 해당 시기를 선택한 이유

로 ‘여름 성수기 여행비용이 비싸서’를 꼽았다.

실제로 이날 여수지역 한 호텔의 비수기와 성수기 기간 숙박비를 비교해 본 결과, 가격 차이는 약 18만원에 달했다. 동일 객실을 기준으로 비성수기(6월14~15일)때 숙박비(2인 기준)는 약 14만원이었지만 극성수기(7월31일~8월1일)때는 약 32만원으로 치솟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 경비 지출 중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20% 이상으로 전년 대비 11.1%의 증가했다. 숙박비는 교통비, 음식비 등 여행경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휴가지 음식점 등 외식물가도 급등하고 있어 휴가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가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성수기 여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성수기 기간 예상되는 무더위와 장마, 관광지 인파 등으로 인해 여유있는 휴가를 즐기기에 어려운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얼리 휴가족’이 늘면서 유통·호텔업계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타호텔은 6월 투숙객 대상으로 ‘6월 빅6’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광주와 여수, 제주 유타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미니바 무료 이용 △식음료 할인 서비스 △10박 이용 시 1박 무료 △일·목 특별 할인가 △U-DAY 스페셜 할인 △레지던스 장기 투숙 혜택 등이다.

또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그린 바캉스 페어’를 통해 친환경 브랜드 바캉스룩 특별전을 열고 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초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6월을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여름휴가 등 여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023 대한민국 숙박제일 페스타’ 할인권 행사를 열고 있는데, 행사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편에서는 12개 광역시·도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만원 할인권을 배포했고, 전국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숙박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市, 상인회와 신세계 확장 상생방안 협의해야”

광주지역 상인들이 광주신세계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협회를 촉구하며 광주시에 교통권 확보와 상인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호월드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기업 대규모점포 광주상인대책위·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신세계 지구단위계획 특례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교통 혼잡과 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구단위계획대로 광주시 소유인 현재 이마트 인근 도로(158m)중절

반을 상업용도로 바꿔 편입한다면 인근 금호월드 상가의 이용 접근로 한 곳이 사라진다”며 “특히 점포 확장에 따른 ‘기’자로 꺾인 신설 도로는 신세계 방문자만 이용하는 허울 뿐인 도로가 될 것이다. 새롭게 지을 지하차도를 농성사거리까지 연장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초대형 점포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데도 인근 상생방안과 업종이 중복되는 상인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상인회 등과 상생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박소영 기자



지난 9일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에서 플로깅을 마친 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소주 동명동 팝업 스토어, 플로깅 명소 ‘각광’

지역 달리기동호회 등 방문 이어져
건강·친환경·바다보호 관심 제고

광주·전남 대표적 향토기업 보해양조가 ‘바다 보호’를 위한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 전개를 위해 문을 연 팝업 스토어가 플로깅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동구 동명동(동명로 14번길 45-21)에 오픈한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에 지역 내 달리기 동호회 회원들의 단체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동명동에서 열린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이용재(28)씨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플로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얻었다”며 “함께 했던 지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플로깅에 종종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달리기 동호회 ‘BGRC(BITGOEUL RUNNING CREW)’ 회원 30여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플로깅

을 진행했다. 이들은 동명동 일대를 누비며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꽂이와 일회용 컵, 휴지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종이와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도 50l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웠다.

지난달 12일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연 직후인 같은 달 17일에는 광주에서 활동 중인 달리기 동호회 ‘하랑’ 회원들이 스몰 액션 스토어를 방문했다. 이들은 플로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보해소주의 핵심 원료인 소금을 제공하는 바다를 보호하고자 해양 환경 보호에 나서는 보해양조의 캠페인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이어 30일에는 또다른 달리기 동호회인 ‘팀 히어로’ 회원들이 이곳을 찾았다.

김여일(28)씨는 “캠페인에 관한 호기심이 기업에 대한 호감으로 달라졌다”고 플로깅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보해양조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이유로 스몰 액션 캠페인을 하지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며 “플로깅을 하면서 보해소주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후 의문이 풀리며 보해소주도 맛보고 싶어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해양조는 단체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플로깅에 대한 교육과 코스 추천 등 플로깅 문화 확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10명 이상 단체 플로깅 희망자들은 보해소주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ickup_bohae)으로 연락하면 일정을 협의한 후 참여 가능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소주 스몰 액션 캠페인은 단순한 브랜드 활동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착한 소비와 건강과 재미까지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좋은 술은 좋은 물에서 나오는 만큼 환경을 지키고 소중한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그룹, 스타트업에 1조3000억 투자

현대차그룹이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HMG Open Innovation Tech Day)’ 행사를 처음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을 비롯 개방형 혁신 성과, 스타트업 협업 체계 등을 발표했다.

특히 △모빈(MOBINN) △모빌테크(MobilTech)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Metaverse Entertainment) △뷰메진(ViewMagine) △어플레이즈(Aplayz) 등 현대차그룹과 협업 중인 5개 스타트업의 주요 기술들을 함께 전시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 의지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스

타트업을 발굴·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실증 사업 지원,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원활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돕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에서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현황과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본격 강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0여개 이상 스타트업에 1조 3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셔널, 슈퍼넬 등 대규모 해외 투자는 제외된 수치다.

곽지혜 기자

재테크 칼럼

‘불을 탈 것인가, 물을 탈 것인가’는 주식 투자자의 고민이면서 속제다.

여기에는 투자자가 가장 경계 해야 할 공포와 탐욕, 두 단어가 개입되어 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으로 대변되는 속칭 ‘불타기’는 상당한 용기를 요구한다. 공포는 주식이 하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나 분야를 매수 할 때도 두려움은 찾아온다.

한 주식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소 그 주식에 관심을 두고 있던 투자자도 섣뜻 사지 못한다. 조정 받을 때 매수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정작 그 종목이나 종목이 속한 산업 분야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락의 시작이 아닐까 두려워서 또 다시 매수하지 못한다. 머뭇거리는 동안 해당 주식이 상승해 버리면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뒤늦게 매수대열에 합류했는데 하락이 시작되고 망연자실 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의 전형이다.

달리기 시작한 말이 비루한 ‘작전주’가 아니고 ‘준마’라면 망설임 없이 올라 타야 한다. 우량 주식이 상승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상승 초기에 올라타면 더욱 좋고 본격적으로 달리는 도중에 올라 타려면 언제든 손해를 감수하고 말 등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한 후에 매수 해야 한다. 손절매를 못하는 투자자라면 ‘불타기’는 물론 주식시장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불타기’는 탐욕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 눈여겨 본 종목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분할매수를 시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불타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매수를 끝낸 주식이라면 경우가 다르다. 매수한 주식이 의도와 다르게 하락하고 하락폭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손절매를 시작해야 하는데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타기’를 해서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 이는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

다. 손해를 볼수 없다는 탐욕이 화를 키우는 것이다.

불타기와 물타기는 1~2년 미만의 단기 투자를 할 때 고려되는 것이다. 5년이든 10년이든 물어두고 마치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고 기다린다면 시간은 내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 대공황 등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결국 경제는 항상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을 거듭했다. 주변에 장기 투자자를 보기 힘든 시대지만 시간에 대한 투자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다.